

#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조형적 변용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ve Transformation of Ecofeminist Discours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주 저 자 : 김생자 (Kim, Sang Ja)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초빙교수  
sjkim99@inha.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1.747>

---

접수일 2026. 02. 11. / 심사완료일 2026. 03. 03. / 게재확정일 2026. 03. 09. / 게재일 2026. 03. 30.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ve transformation of ecofeminist discours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Ecofeminism, which crit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linkage between the domination of women and the domination of nature, has expanded beyond philosophical and ethical debates into various socio-cultural fields, including fashion. While early fashion practices in the late 1990s primarily expressed ecofeminist ideas through symbolic representations of nature and femininity, recent practices since the 2020s have increasingly translated such discourse into structural and practice-oriented design strategies. Based on a theoretical review of ecofeminism and sustainability discourse, this research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ing formative elements and semantic dimension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cases from the late 1990s and from 2020 to the present, the study identifies a shift from symbolic representation to structural internaliz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ecofeminist discourse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has evolved into three transformative stages: symbolic representation, strategic design transition, and structural internalization. This transformation is characterized by material sustainability, structural restraint, life-cycle consciousness, and the expansion of ethical meaning within the design process. The study clarifies how ecofeminist discourse is translated into formative language and structural logic in fashion design, and propo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sustainable and ethical design practice.

## Keyword

Ecofeminism(에코페미니즘), Contemporary Fashion Design(현대패션디자인), Formative Transformation(조형적 변용),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Structural Internalization(구조적 내재화)

## 요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조형적 변용 과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여성에 대한 억압의 구조적 연관성을 비판하는 담론으로 출발하여, 최근에는 지속가능성 논의와 결합하며 다양한 디자인 실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 분야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조형 요소와 설계 구조 차원에서 어떻게 전이·내면화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이론과 지속가능 패션 담론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토대로 조형 요소와 의미 요소를 통합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의 패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담론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에코페미니즘은 초기의 상징적 재현 단계에서 설계 전략 전환 단계를 거쳐, 최근에는 구조적 내재화 단계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형적 변용은 소재의 지속가능성 강화, 구조의 절제와 단순화, 수명주기 중심 설계, 윤리적 의미의 확장이라는 특징으로 구체화된다.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패션디자인의 조형 언어 및 설계 논리로 전환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동시대 지속가능 디자인 실천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목차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및 연구문제

1-3. 연구 범위와 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에코페미니즘의 개념 및 주요 쟁점
- 2-2.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재현 양상
- 2-3.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연대별 전개와 패션 분야에서의 수용 흐름
- 2-4. 에코페미니즘의 분석 관점 및 기준 설정

## 3.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조형 특성과 의미 구조

- 3-1. 1990년대말 패션 사례의 조형 구조 분석
- 3-2. 2020년 이후 패션 사례의 설계 구조 전환 분석
- 3-3. 1990년대 말-2020년 이후 사례의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의 심화는 산업 전반의 생산 및 소비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 또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패션 산업은 원료 생산, 제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지적되어 왔다.<sup>1)</sup> 이에 따라 최근 패션 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 제로 웨이스트 설계, 업사이클링 전략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sup>2)</sup>

특히 2020년 이후 기후 위기의 가속화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확산은 패션 산업의 생산 구조와 디자인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하였다.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 차원에서도 소재 선택, 패턴 설계, 생산 방식에 이르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제기해 온 지배 구조 비판과 상호의존성의 윤리를 다시

- 1) 황보애이정수,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Vol.27, No.3, 2023.09, pp.1-2
- 2) 황보애이정수, 앞의 글, pp.1, 8

비교 분석과 조형적 변용 유형 도출

## 4. 결론

- 4-1. 에코페미니즘의 조형적 변용 유형의 종합적 정리
- 4-2. 에코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의미 및 디자인적 시사점
- 4-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참고문헌

조명하게 만드는 동시대적 맥락을 형성한다.<sup>3)</sup>

한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동일한 위계적 사고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인간-자연-젠더 관계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이 담론은 환경 위기를 단순한 생태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권력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윤리적 전환을 요청한다. 국내에서도 생태위기 맥락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을 재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그러나 패션 분야에서의 선행 연구는 에코페미니즘을 자연 모티프, 여성성의 상징적 표현 등 '경향' 차원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담론이 실제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설계 전략으로 어떻게 전이·변용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sup>5)</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말 연구는 자연주

- 3) Karen J. Warren,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Vol.12, No.2, 1990, pp.125-126
- 4) 박혜영,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Vol.76, No.4, 2019, pp.325-327
- 5) 김정혜,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22-24

의 이미지와 여성성의 상징적 재현을 중심으로 조형 특성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후 지속가능 패션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슬로우 패션 등 실천 전략의 유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철학적 기반과 디자인 설계 구조 간의 연결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담론이 조형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1990년대 말의 초기 경향과 2020년 이후의 지속가능 패션 실천 전략 사이의 변화 양상을 비교·정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어떠한 조형 특성과 의미 구조로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통해 그 조형적 변용 유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조형적 변용’이란 특정 담론이 단순한 이미지 차용이나 상징적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소재 선택 패턴 구조·형태 구성과 같은 조형 요소 및 설계 원리 차원에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담론의 외적 표현을 넘어 디자인 구조 내부로의 전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개념적 틀이다.

##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구현되는 방식과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조형적 변용 구조를 체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에코페미니즘 담론은 패션디자인에서 어떠한 조형 요소로 구현되는가?

둘째,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의 사례 사이에는 어떠한 조형적 차이와 변화가 나타나는가?

셋째, 이러한 변화는 자연관, 젠더 인식, 지속가능 실천의 의미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가?

##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를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로 설정한다. 1990년대 말은 패션 분야에서 에코페미니즘 경향이 정리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sup>6)</sup> 2020년 이후는 지속가능 패션이 실천 전략 중심으로 구체화된 시기로 판단된다.<sup>7)</sup>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한다.

문헌 연구에서는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주요 쟁점과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연구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 요소와 의미 요소를 교차하는 분석틀을 설정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의 패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상징적 표현 중심의 경향이 구조적 설계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에코페미니즘과 지속가능 패션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조형 요소와 의미 요소를 결합한 분석 기준을 설정한다. 이후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시기별 특성과 조형적 변용 유형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특정 디자이너가 에코페미니즘을 직접 표방하였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설계 구조가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연결은 사실 확인의 차원이 라기보다 담론과 조형 구조 간의 해석적 관련성을 밝히는 질적 분석에 해당한다.

## 1-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동일한 위계적 지배 논리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인간-자연-젠더의 관계를 비지배적·상호의존적 관계로 재구성하려는 담론을 의미한다.<sup>8)</sup>

‘조형적 변용’이란 특정 담론이나 이념이 디자인의 구체적 조형 요소와 설계 원리를 통해 물질적 형태로 구현·재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6) 김정혜,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22-24
- 7) 황보애이정수,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Vol.27, No.3, 2023.09, pp.1-2; 황보애이정수, 앞의 글, pp.1, 8
- 8) 김경미, ‘에코페미니즘과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 찾기 - <궤호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22, pp.43-45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은 의복의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려는 디자인 전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sup>9)</sup>

### 1-5.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본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다룬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자연 모티프와 여성성 재현을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을 정리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슬로우 패션, 수명주기 연장 등 실천 전략의 특성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다.<sup>10)</sup>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에코페미니즘 담론을 패션디자인의 경향적·이미지적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지속가능 디자인 전략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으며, 담론이 조형 요소의 설계 논리로 전이·변용되는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의 패션디자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조형적 변용의 구조와 의미 변화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 2. 이론적 배경

### 2-1. 에코페미니즘의 개념 및 주요 쟁점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동일한 위계적 사고 체계에 기반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론적 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문화와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근대 산업 사회의 지배 논리를 형성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분리 구조가 환경 파괴와 젠더 불평등을 동시에 심화시켜 왔다고 본다.<sup>11)</sup> 에코페미니즘은 따라서

환경 문제를 단순한 생태 보존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주의와 구별된다.

이론 내부에서는 여성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상이한 관점이 전개되어 왔다. 일부 경향은 여성성과 생명성을 연결하며 돌봄의 윤리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경향은 그러한 연결이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구성물임을 강조한다.<sup>12)</sup> 이러한 논의는 에코페미니즘이 단순한 자연주의적 감성이나 상징 체계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비판 이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Warren은 에코페미니즘을 지배의 논리(logic of domination)를 해체하기 위한 윤리적 틀로 제시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상호의존적 관계 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국내 연구에서도 에코페미니즘은 생태위기 담론 속에서 젠더 문제를 재해석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상징적 동일시가 아닌 구조적 비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sup>14)</sup>

이와 같은 이론적 맥락은 패션디자인에서 자연 이미지를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 디자인 설계 구조에 내재된 가치 체계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을 조형 분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한 표현 차원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2-2.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재현 양상

에코페미니즘은 문학, 예술, 영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 영역에서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어 왔다. 이러한 재현은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능동적 존재로 설정하거나, 인간 중심주의적 질서를 전복하는 서사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sup>15)</sup> 특히

9) 주은경,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6-18

10) 김정혜, 앞의 글, pp.22-24; 김수현·이재정,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4, 2006, pp.225-227; Hazel Clark, ‘SLOW + FASHION—an Oxymoron—or a Promise for the Future...?’, Fashion Theory, Vol.12, No.4, 2008.12, p.428; 황보애·이정수, 앞의 글, pp.1, 8

11) Karen J. Warren,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Vol.12,

No.2, 1990, pp.125-126

12) 황보애·이정수, 앞의 글, pp.1, 8

13) 황보애·이정수,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을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Vol.27, No.3, 2023.09, pp.1-2

14) Karen J. Warren,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Vol.12, No.2 (Summer 1990), pp.125-126

15) 박혜영,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Vol.76,

자연 파괴와 젠더 억압을 병치하거나 교차시키는 서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문화적 상상력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문학 연구에서는 고전 텍스트를 재해석하여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위계적 세계관을 전환하는 담론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sup>16)</sup> 또한 현대 문학 분석에서도 자연의 훼손과 여성의 주변화가 동일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서사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sup>17)</sup>

이러한 문화적 재현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연과 여성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상징화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그 상징화 자체를 비판하며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두 경향은 패션디자인 영역에서도 상징적 자연주의 표현과 구조적 설계 전략이라는 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영역의 재현 구조를 검토하는 작업은 패션디자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3.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연대별 전개와 패션 분야에서의 수용 흐름

패션 분야에서 에코페미니즘은 1990년대 말 자연주의적 경향과 여성성 재해석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자연 모티프, 유기적 실루엣, 부드러운 색채 체계 등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향을 정리하였다.<sup>18)</sup> 이러한 접근은 에코페미니즘을 상징적 표현 차원에서 해석한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 디자인 담론이 확산되면서 패션 분야에서도 환경 문제를 생산 구조와 연결하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김수현·이재정은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을 생산과 소비 전 과정의 구조적 전환으로 정의하였으며,<sup>19)</sup> Clark은 슬로우 패션을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sup>20)</sup>

2010년대에는 업사이클링과 제로 웨이스트 설계가 조형 실험의 차원에서 확장되었다. 국혜승·김혜연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 단순한 재료 절감 전략을 넘어 패턴 구조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분석하였다.<sup>21)</sup> 이러한 변화는 자연을 이미지로 차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설계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이후에 이르러 지속가능 패션은 브랜드 전략을 넘어 구조적 설계 원리로 정착하고 있으며, 의복 수명주기 연장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은 연대별 흐름은 상징적 자연주의에서 구조적 설계 전략으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조형 요소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4. 에코페미니즘의 분석 관점 및 기준 설정

앞선 이론적 고찰을 종합하면,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단순한 상징적 동일시로 이해하기보다, 위계적 지배 구조를 비판하고 상호의존적 관계 윤리를 모색하는 담론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은 사회·문화 영역에서 자연의 재현 방식과 젠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나타났으며, 패션 분야에서는 조형 요소의 변화와 설계 전략의 전환이라는 방식으로 수용되어 왔다.

기존 패션 연구는 자연 모티프, 유기적 형태, 친환경 소재 등 조형 특성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거나, 지속가능 디자인 전략의 분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패션디자인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이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형 요소와 의미 요소를 교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외형적 특성과 내적 의미를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No.4, 2019, pp.325-327

16) 박혜영,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인문논총, Vol.76, No.4, 2019, pp.325-327

17) 김정혜,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22-24

18) 김수현·이재정,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기초조형학연구, Vol.7, No.4, 2006, pp.225-227

19) 김정혜, 앞의 글, pp.22-24

20) 국혜승·김혜연,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6, pp.32-33

21) Hazel Clark, 'SLOW + FASHION—an Oxy-moron—or a Promise for the Future...?', Fashion Theory, Vol.12, No.4, December 2008, p.428

22) 김경미, '에코페미니즘과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 찾기 - <귀호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22, pp.43-45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관점을 두 차원으로 설정한다. 첫째는 패션디자인의 가시적 조형 요소 차원이다. 이는 소재, 실루엣, 색채, 텍스처와 같은 물질적·형태적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는 의미적 차원으로, 자연과의 재구성, 젠더 인식의 변화, 지속가능 실천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중 구조를 통해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단순한 이미지 차용을 넘어 설계 체계 내부로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표 1]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연대별 전개와 패션 분야 수용 흐름**

연대 구분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전개	패션 분야에서의 수용 양상
1990년대 말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 구조를 비판하는 담론 형성. 자연-여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재해석하며 생명성·상호 의존성의 윤리를 강조	자연 모티프 활용, 유기적 실루엣, 자연색 중심 조형 경향. 상징적·이미지적 차원의 수용이 중심
2000년대	지속가능성 담론과 결합. 윤리적 소비, 환경 책임, 생산 구조 비판 논의 확산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 지속가능성 개념 도입. 설계 구조보다는 경향적 적용 단계
2010년대	업사이클링·제로 웨이스트 등 실천 전략 중심 담론 강화. 생산 구조와 설계 방식의 전환 논의 확대	패턴 구조 실험, 해체·재구성 기반 조형 확대. 재활용 소재의 조형 언어화
2020년 이후	순환성, 수명주기 연장, 설계 단계의 구조적 내재화 강조. 담론의 체계화	모듈형·가변구조 설계, 제로 웨이스트 패턴, 수선 재사용을 고려한 수명주기 중심 설계 전략 정착

이상과 같이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연대별 전개와 패션 분야에서의 수용 흐름을 정리한 결과, 담론의 성격은 1990년대 말의 상징적·이미지 중심 표현에서 출발하여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며 지속가능성 실천 전략과 결합하고, 2020년 이후에 이르러서는 설계 구조 차원의 전환으로 심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담론이 패션디자인 내부에서 어떠한 조형 특성과 내적 의미로 구체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형성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말과 구조적 내면화가 두드러지는 2020년 이후를 중심 시기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3.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조형 특성과 의미 구조

#### 3-1. 1990년대 말 패션 사례의 조형 구조 분석

1990년대 말 패션 영역에서는 자연주의적 감수성과 여성성의 재해석이 결합된 조형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의 디자인은 자연을 단순한 장식적 모티프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신체와 자연 환경의 관계를 미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생산 구조의 근본적 전환보다는 조형 언어 차원의 변형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조형 요소 차원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유기적 실루엣의 확산이다. 직선적이고 구조화된 테일러링 대신 곡선과 비정형적 흐름을 강조하는 형태가 등장하며, 이는 신체를 규율하고 통제하는 근대적 패턴 구조와 대비된다. 또한 자연색 계열의 색채 사용과 식물·토양을 연상시키는 질감 표현은 자연을 생명성과 순환성의 상징으로 가시화한다.

Stella McCartney의 초기 활동은 이러한 경향을 윤리적 차원으로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는 가죽과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동물 착취를 전제로 한 전통적 패션 생산 방식을 비판하였다. 이는 조형적 표현을 넘어 소재 선택의 윤리성을 문제화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를 에코페미니즘의 직접적 표명으로 단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형 구조와 윤리 전략을 근거로 한 해석적 연결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Stella McCartney의 작업을 에코페미니즘의 직접적 실천 사례로 단정하기보다, 동물성 소재 배제와 비폭력적 생산 윤리라는 조형·윤리적 특성이 에코페미니즘 담론과 해석적으로 접점을 형성하는 사례로 이해하고자 한다.

Issey Miyake의 1990년대 작업, 특히 *Pleats Please* 라인은 신체 움직임에 따라 변형되는 구조와 효율적 생산 공정을 결합한 사례이다. 반복적 플리츠 공정은 원단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가변적 형태를 구현한다. 이는 신체와 자연의 유기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역시 설계 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의미 구조 차원에서 볼 때, 이 시기 디자인은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돌봄·생명성·비폭력성의 이미지와 연

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구조적 권력 분석으로 확장되기보다는 상징적 동일시의 수준에 머무른다. 즉, 자연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동일한 위계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담론적 문제의식은 설계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해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1990년대 말의 패션은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조형적 외피 차원에서 수용된 초기 단계로 규정할 수 있다.

[표 2] 1990년대 말 패션 사례의 조형 요소와 의미 구조 분석

조형·의미 분석 기준	사례 분석 내용
자연의 조형적 재현	유기적 곡선 실루엣, 자연색 계열, 식물·토양을 연상시키는 표면 질감
실루엣 구성	신체를 통제하는 구조보다 흐름을 강조하는 형태 구성
소재 전략	동물성 소재 사용의 제한 및 윤리적 소비 맥락의 형성
의미 작동 방식	자연과 여성의 상징적 병치, 생명성·돌봄 이미지 강조
담론 수용 방식	조형 언어 차원에서의 외형적·상징적 수용



[그림 1] Stella McCartney, Spring/Summer 1998 Collection (출처: WWD/ Getty)



[그림 2] Issey Miyake, Pleats Please Collection (출처: Issey Miyake Official Archive)

### 3-2. 2020년 이후 패션 사례의 설계 구조 전환 분석

2020년 이후의 패션 사례에서는 자연이 조형적 상징이 아니라 설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자연의 재현에서 생산 체계의 재조직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Stella McCartney는 최근 컬렉션에서 재생 소재 비율 확대, 공급망 추적 시스템 도입, 바이오 기반 대체 소재 실험 등을 통해 순환 경제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윤리적 소재 선택을 넘어 생산·유통·폐기 구조 전환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Marine Serre는 기존 스포츠웨어와 빈티지 원단을 해체·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컬렉션을 구성한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전략은 잔여물을 사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체와 재구성을 조형 언어로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Gabriela Hearst는 장기 착용을 전제로 한 클래식 실루엣과 고내구성 소재를 활용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생산 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수명주기 연장을 설계 원리로 내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형 요소 차원에서 이 시기의 디자인은 제로 웨이스트 패턴, 모듈형 구조, 가변적 구성 방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의미 구조 차원에서는 자연이 장식적 배경이 아니라 윤리적 판단 기준으로 전환된다. 자연과 여성의 관계 또한 상징적 병치가 아니라 지배 구조를 재편하는 설계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사례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설계 체계 내부로 내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해석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가 에코페미니즘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계 윤리의 조형적 구현이 담론과 구조적으로 접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표 3] 2020년 이후 패션 사례의 설계 구조 전환 특성

조형·의미 분석 기준	사례 분석 내용
설계 구조	제로 웨이스트 패턴, 해체·재구성 기반 구조
소재 전략	업사이클링, 재생 섬유, 순환 소재 사용
시간성 설계	수선·재사용을 전제로 한 수명주기 중심 설계
시스템 전략	탄소 중립 시도, 공급망 투명성 강화
담론 수용 방식	설계·생산 구조 내부로의 내재화



[그림 3] Marine Serre, Spring 2020 Collection  
(출처: WWD)



[그림 4] Gabriela Hearst, Fall 2022 Collection  
(출처: Vogue Runway)

### 3-3. 1990년대 말-2020년 이후 사례의 비교 분석과 조형적 변용 유형 도출

1990년대 말 사례와 2020년 이후 사례를 비교하면,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패션디자인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자연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이동한다. 1990년대 말은 자연을 생명성·순환성의 이미지로 호출하고, 여성성을 돌봄·유기성의 상징으로 재현하는 조형 언어가 두드러진다. 이때 조형 요소는 곡선적 실루엣, 자연색 계열, 유기적 표면감과 같은 시각적 표지(signifier)를 통해 자연·여성의 연관성을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 전략은 대체로 미학적·상징적 층위에서 작동하며, 생산·유통·폐기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설계 단계에서 직접 재조각하는 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담론은 ‘표현’으로 강하게 드러나지만, ‘설계 원리’로 내재화되지는 않은 상태에 가깝다.

반면 2020년 이후 사례에서는 자연이 더 이상 장식적 대상이나 상징적 배경으로 머무르지 않고, 설계 판단을 규정하는 윤리적 기준이자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이 시기의 핵심은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소재 흐름과 패턴 구조, 사용·수선·재사용을 전제로 한 수명주기(lifecycle)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형태의 내부’에 내장시키는 방식이다. 예컨대 업사이클링 기반 설계는 기존 재료를 해체·재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조형 언어가 되며, 제로 웨이스트 패턴은 제작 과정의 낭비를 사후 처리하는 대신 재단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재조직한다. 또한 장기 착용을 전제로 한 클래식 실루엣, 모듈형·가변형 구성, 수선 가능성을 고려한 디테일은 소

비 이후의 시간을 설계 변수로 포함시키면서, 디자인을 단기 유행의 산물이 아니라 '지속'의 체계로 전환한다. 이때 담론은 외형적 표지에서 약화되는 대신, 생산-구조시간의 차원에서 강화된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패선적 수용이 단순한 양식 변화가 아니라, 담론이 위치하는 층위의 이동, 즉 '조형적 변용(formative transformation)'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조형적 변용은 특정 담론이 조형 요소의 표면적 표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설계의 규칙과 제작의 논리를 통해 물질적 형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의 차이는 '무엇을 표현했는가'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담론을 배치했는가'의 차이이다. 전자가 이미지-상징 중심의 조형이라면, 후자는 구조-공정-수명주기 중심의 조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조형적 변용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1990년대 말은 '유기성, 자연주의, 상징, 재현, 돌봄'의 언어가 조형 요소와 결합해 담론을 외형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0년 이후는 '순환, 해체/재구성, 최소낭비, 추적가능성, 수선/재사용, 장기사용'의 언어가 설계 논리로 내장되면서 담론을 구조화한다. 특히 두 시기의 대비는 '표면의 자연(이미지)'에서 '구조의 자연(시스템)'으로의 전환, '여성성의 상징'에서 '돌봄 윤리의 설계로의 전환, '표현의 강화'에서 '내재의 강화'로의 전환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변용은 에코페미니즘이 제기해 온 지배 논리 비판이 패선에서 더 이상 이미지 차용의 층위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 체계와 설계 원리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 결과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패선적 수용이 단선적 확산이 아니라 '상징적 재현 → 윤리적 선택의 강조 → 구조적 설계의 전환 → 순환의 내재화'라는 변용 경로를 따라 심화되며, 이 경로가 조형 요소(소재-실루엣-색채-텍스처)와 의미 차원(자연관-젠더 인식-지속가능 실천)의 결합 방식 변화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변용 유형은 특정 사례를 에코페미니즘의 직접적 실천으로 확정하는 결론이라기보다, 담론과 조형 구조의 상관성을 해석적으로 정리한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도출 결과는 이후 결론 장에서 조형적 변용 유형을 종합하고, 동시대적 의미 및 디자인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표 4] 에코페미니즘 담론의 조형적 변용 단계 비교

조형의미 분석 기준	1990년대 말	2020년 이후	조형적 변용의 구조적 특성
자연의 위치	자연을 생명성·순환성의 상징적 모티프로 재현	자연을 설계 판단의 윤리적·구조적 기준으로 내재화	재현된 자연 ↓ 설계의 자연
실루엣 구성 논리	유기적 곡선, 자연주의적 흐름을 통한 형태 재현	모듈형·가변 구조, 장기 사용을 전제한 구조 설계	형태의 유기성 ↓ 구조의 지속성
색채 및 표면 전략	자연색 중심의 색채 체계, 생명성 연상 텍스처	재생·순환 소재의 물성 강조, 추적가능성 부각	이미지적 자연성 ↓ 물질적 순환성
소재 사용 방식	동물성 소재 배제 등 윤리적 선택의 상징화	업사이클링·재생섬유의 체계적 구조화	윤리적 선택 ↓ 시스템설계
패턴·제작 구조	기존 재단 체계 유지, 미학 중심 적용	제로 웨이스트 패턴, 해체·재구성 기반 구조 전환	형태 차용 ↓ 구조 재조직
시간성 인식	동시대 미학 경향으로서의 자연주의	수명주기 연장, 수선·재사용 고려한 설계	단기 미학 ↓ 장기 지속성
젠더 의미 작동	여성성과 자연의 상징적 병치	돌봄 상호 의존 윤리의 설계적 구현	상징적 여성성 ↓ 관계 윤리 내재화
담론의 작동 층위	조형 언어의 외형적 표현 차원	설계·생산·소비 구조 내부	외적 표현 ↓ 내적 구조화

표 4는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 사례의 비교를 통해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조형적 재현의 단계에서 설계 구조의 내재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용은 자연과 여성 관계의 상징적 병치를 넘어, 생산 체계와 수명주기 설계의 윤리로 확장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 4. 결론

### 4-1. 에코페미니즘의 조형적 변용 유형의 종합적 정리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담론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어떠한 조형적 변용 과정을 거쳐 수용되었는지를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 사례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코페미니즘의 패션적 수용은 단순한 경향의 확산이 아니라 담론의 작동 층위가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말의 사례는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조형 언어를 통해 가시화하는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유기적 실루엣, 자연색 중심의 색채 체계, 생명성을 환기하는 표면 질감은 자연을 미적 모티프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생산 체계나 설계 구조의 근본적 재조직까지는 확장되지 못하였으며, 자연과 여성의 관계 역시 상징적 동일시의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 단계에서 담론은 주로 외형적 표현의 층위에서 작동하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며 지속가능성 담론이 패션 분야에 본격적으로 결합하면서, 조형 실천은 점차 설계 전략 차원으로 이동하였다. 친환경 소재 사용, 제로 웨이스트 설계, 업사이클링 전략은 상징적 자연주의를 넘어 생산 방식과 패턴 구조를 문제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징적 재현 단계와 구조적 내재화 단계 사이의 과도기적 이행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2020년 이후의 사례에서는 담론이 설계 구조 내부로 본격적으로 내재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패턴 단계에서의 구조 재설계, 모듈형·가변 구조의 도입, 수선과 재사용을 전제로 한 수명주기 중심 설계는 자연을 장식적 배경이 아닌 설계 판단의 기준으로 전환시킨다. 이 단계에서 자연과 여성에 대한 지배 구조 비판은 이미징적 재현이 아니라 생산 체계의 재조직이라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하면, 에코페미니즘의 조형적 변용은 상징적 재현에서 출발하여 설계 전략의 전환을 거쳐 구조적 내재화로 심화되는 경로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양식 변화가 아니라 담론의 작동 위치가 조형 언어의 표면에서 설계 체계의 내부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동은 패션디자인이 가치 체계를 표현하는 매체를 넘어, 가치 체계를 물질적으로 재구성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2. 에코페미니즘의 동시대적 의미 및 디자인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을 자연 모티프나 여성성의 상징적 표현으로 환원하지 않고, 설계 구조 분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는 에코페미니즘을 이념적 선언이 아니라 디자인 판단의 구조적 기준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이라는 동시대적 조건 속에서 패션 산업은 생산과 소비 체계 전반의 재조직을 요구 받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이 제기해 온 지배 구조 비판과 상호의존성의 윤리는 이러한 전환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틀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자연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동일한 위계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은, 인간 중심적 생산 구조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디자인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지속가능성을 미적 표지나 소재 선택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패턴 구조·모듈 설계·수명주기 전략을 포함하는 총체적 설계 사고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관계 윤리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는 패션디자인 교육과 실무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구조적 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4-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공개 자료에 기반한 해석적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사례로 제시된 디자이너와 브랜드는 에코페미니즘을 직접적으로 표방한 경우라기 보다, 지속가능성 및 관계 윤리의 조형적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담론과 해석적으로 연결된 사례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실증적 인과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패션디자인의 조형 구조를 통해 담론적 연관성을 해석적으로 제안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정 디자이너가 에코페미니즘을 직접적으로 표방하였는지에 대한 명시적 자료는 제한적이었으며, 본 연구는 조형 구조와

담론 간의 이론적 연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990년대 말과 2020년 이후라는 두 시기를 중심으로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담론 변용의 연속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 데이터, 탄소 배출 지표, 소재 추적 시스템 등 산업 차원의 실증 자료를 포함한 연구가 병행 될 경우, 설계 구조 전환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이너 인터뷰 및 현장 조사 연구 또한 담론과 설계 의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문헌

- Warren, Karen J., 『*Ecofeminist Philosophy: A Western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 Merchant, Carolyn,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Harper & Row, 1980
- Plumwood, Val,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Routledge, 1993
- Gaard, Greta (ed.),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 Shiva, Vandana,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Zed Books, 1988
- 국혜승·김혜연,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2016
- 김경미, '에코페미니즘과 고전문학 연구의 접점 찾기-&궤호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22
- 김수현·이재경,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2006
- 나은마·김새봄·이경희, '친환경적 다기능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2011
- 박혜영, '생태위기와 에코페미니즘의 '젠더'론 — 젠더의 저항성 회복을 위한 모색',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2019
- 박효주·김경희,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성에 따른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니트디자인학회, 패션과 니트, 2018
- 이영선, '서브트렉션 커팅 방법을 활용한 제로 웨이스트패션디자인 개발 - 면 저지 원단을 중심으로 -',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17
- 채혜숙,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현대 패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2009
- 한연화·김정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마카쥬 기법의 업사이클링 표현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19
- 황보애·이경수,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의복의 수명주기 연장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패션비즈니스, 2023
- Clark, Hazel, 'SLOW + FASHION—an Oxymoron—or a Promise for the Future?', Fashion Theory, 2008
- Warren, Karen J.,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1990
- 김정혜,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주은경, '한강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